

# 올 '광주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무산 위기

### 20년 명맥...3·1절 코 앞인데 행사 추진위도 못꾸러

### 학생 동원 부담·까다로운 보훈청 예산 지원 절차 발목

1998년부터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광주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올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공휴일(3·1절)에 학생을 동원하는 데 대한 학교 측 부담, 까다로운 보훈청 예산 지원 절차, 재연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구성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0일 광주지방보훈청,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3·1절에 맞춰 열여오던 광주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올해는 치러지지 못할 전망이다.

광주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는 3·1절 공식 기념식과 함께 광주에서 치러지는 주요 독립기념행사로 만세결기, 만세행진, 독립선언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919

년 3월 10일 수피아여고 학생, 양림교회 교인 등 지역 학생·주민이 광주 구동 부동교 아래 장터에서 외쳤던 만세운동을 기념하자는 취지로, 매년 보훈청으로부터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치러져왔다. 일본군 헌병 의복과 치마와 저고리를 갖춰 입고 400여명의 학생들이 수피아여고를 출발, 구동교를 지나 빛고을 시민문화관(구동)까지 만세행진을 한다.

그러나 올해는 3·1절이 재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추진위조차 꾸러지지 않았다. 매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수피아여고, 양림교회(교회 3곳), 양림동 청년단체 측 관계자 33명을 위원으로

늦어도 2월 초면 매년 새롭게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올해는 추진위를 법인으로 구성하려던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진용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양림교회 측은 보훈청 예산만으로는 학생간식비, 의복대여비, 대형 태극기 제작비 등을 감당하고 장기적으로 행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광주시에 추가 예산지원을 요청하려고 법인 설립 작업에 나섰다.

보훈청 측 예산지원 절차가 다소 복잡해진 것도 추진위 구성과 만세재현 행사 무산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문서 수발신을 통해 추진위 측에 예산이 지급되던 것이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등록단체 또는 법인명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광주보훈청 측은 "일부 예산 지원 절차가 변경됐으나 추진위 측에 최

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수피아여고 측도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매년 2학년 학생 400여명 전체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도, 학부모 측도 행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휴일 학생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철 전 광주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추진위원장은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양림교회를 중심으로 법인화 작업에 나선 것이 늦어진데다 수피아여고측도 학생 동원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추진 동력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여기에 올해부터는 보훈청 예산지원 방법이 까다로워진 탓에 현재로서는 행사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설레는 대학 신입생 'OT'** 20일 조선대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석한 새내기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듣고 있다. 조선대는 20일부터 22일까지 단과대학별로 토코콘서트, 수강신청 안내, 알찬 대학생활동 우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 전공노,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 수사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지역 본부는 20일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문옥 감사위원장이 광주시 노조의 조직전환(전공노 가입투표) 과정에서 시정 직원들의 노조비 납부사실을 파악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5월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현재까지 9개월간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수차례 검찰에

울려 보냈지만 검찰측은 감사위원장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지휘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성문옥 감사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성과주의 등 박근혜 정권 정책에 줄곧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전공노 측을 돕는 상황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공노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당한 임우진 광주시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법원 "전남대 총학 선거 후보자 자격 박탈 부당"

총학생회 선거 규정을 비판, 명예훼손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올해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2명이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후보자자격박탈조치효력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이들은 "선거 기탁금이 너무 비싸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 등을 해 '총학생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인터뷰 등은 선거자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 박탈은 가장 중한 징계인데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남대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를 미달로 선거가 무산됐으며 올해 초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법원이 이들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2 해질 18:20 | 달출몰 02:56 달지름 13:26

**감기 조심하세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5/10	보성	맑음	-6/9
목포	맑음	-4/9	순천	맑음	-4/9
여수	맑음	-2/8	영광	맑음	-7/8
나주	맑음	-5/10	진도	맑음	-2/7
완도	맑음	-3/9	전주	맑음	-5/8
구례	맑음	-8/9	군산	맑음	-6/7
강진	맑음	-5/9	남원	맑음	-7/10
해남	맑음	-6/9	축산도	맑음	-1/5
장성	맑음	-6/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5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북동	2.0~4.0	동~남동	1.0~2.0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	동~남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북동	2.0~3.0	동~남동	1.0~2.0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2.0~4.0	동~남동	1.5~2.5

**◇생활지수**

매우높음	+
높음	+
매우높음	+
감기	+
관심	+
체감온도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28	09:45
	16:25	21:44
여수	간조	만조
	12:10	05:54
	23:42	17:31

**◇주간 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	☁	☀	☀	☀	☀	☀
2/10	2/6	-2/6	-2/9	-2/9	-2/9	-1/11

## "5·18 북한군 개입설 확산 우려스럽다"

### 그레그 전 주한美대사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Donald Gregg·90)가 20일 "한국에서 아직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그레그 전 대사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재단 앞

으로 전자우편을 보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일부 세력을 비판하면서 이런 입장을 보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우리 정부가 5·18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도 5·18북한군 개입설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khk@kwangju.co.kr

## 진도개 철마, 토종견 최초 인명구조 적합시험 합격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가 국내 토종견으로서 처음으로 국제인명구조견 적합성 시험에 합격했다.

진도군은 최근 대구에서 국제인명구조견협회(IRO) 주최로 열린 '국제인명구조견 인증시험'에서 군 소유 진도개 '철마'가 적합성 시험에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철마는 복종과 장애물 극복 능력을 보는 종합전술, 제한 시간 내 2명의 실종자를 찾는 산악수색 등 2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명구조견 인증시험은 적합성, 레벨 A, 레벨 B 등 3단계로 나뉜다. 실제 구조 활동에 투입되면 통상 레벨 A 단계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개는 중앙119 소속 30여 마리 등 총 40여 마리로, 모두 레벨 A



단계 이상 인증을 받았다. 철마는 오는 10월 레벨 A 인증시험에 도전할 예정이며, 훈련 중인 광주예견훈련소에서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다. 진도 철마산에서 이름을 따온 철마는 생후 13개월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가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가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라비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